

사극·휴먼·애니...푸짐한 스크린 골라 보세요



영화계 최대 대목인 추석을 맞아 다양한 영화가 관객들을 기다리고 있다. 이미 관객들에게 호평받고 있는 '사도'를 비롯해 '서부전선' 등 한국 영화와 함께 '에베레스트' 등 외국영화도 관객몰이에 나선다. 온 가족이 함께 관람할 수 있는 애니메이션 역시 눈길을 끈다. 특히 관객들에게 익숙한 할리우드 작품 대신, 프랑스와 쿠바, 중국의 애니메이션 작품을 볼 수 있는 기회다.

300만 순항 송강호·유아인 '사도' 독주 체제

'서부전선' '에베레스트' 등 한·외화 관객몰이

프랑스·쿠바·중국산 3색 애니메이션 눈길

좌로부터 문:달의 요정, 사도, 메이즈 러너:스코치 트라이얼, 탐정:더 비기닝, 서부전선, 에베레스트, 레전드 오브 래빗:볼의 전설.

사도

지난 16일 개봉 후 이미 300만명 가까운 관객을 동원하며 흥행 순항중이다. 드라마와 영화로 여러 차례 만들어져 인지도가 높은 영조와 사도세자의 이야기를 그린 작품으로 특히 두 사람의 인간적인 관계에 초점을 맞췄다.

무엇보다 이 영화의 흥행 요소는 배우다. 더 이상 설명이 필요없는 배우 송강호가 영조로 출연하고 최근 '베테랑'으로 1300만명의 관객을 동원한 유아인이 사도세자로 분했다. 그밖에 혜경궁 홍씨 역으로 문근영이 함께 호흡을 맞췄으며 소지섭이 정조로 깜짝 출연한다. '왕의 남자'로 이미 1000만명의 관객을 동원한 이준익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다. <12세 이상 관람가>

메이즈 러너:스코치 트라이얼

지난해 개봉해 화제를 모았던 '메이즈 러너'의 속편으로 제임스 다시너의 베스트셀러가 원작이다.

살아 움직이는 거대한 미로에서 탈출해 또 다른 세상 '스코치'에 도착한 러너들이 미스터리한 조직 '위키드'에 맞서 벌이는 생존 사투를 그리고 있다.

젊은 층으로부터 인기 있는 청춘스타 토머스 샌스터와 딜런 오브라이언, 스코텔리리오 등 전작에

출연했던 배우들이 그대로 호흡을 맞췄다. 화제가 됐던 한국계 배우 이기홍 역시 그대로 출연했다. <12세 이상 관람가>

탐정:더 비기닝

명절이면 흥행 강세를 보이는 코믹 추리물이다. '한국의 셜록'을 꿈꾸며 탐정놀이를 즐기는 만화방 주인과 광역 수사대 베테랑 형사가 한 팀을 꾸려 사건을 해결하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미제살인사건 카페를 운영하는 파워블로거 대만의 유일한 낙은 경찰서를 기웃거리며 수사에 간섭하기다. 형사 노태수는 대만이 눈엣가시지만 친구이자 강력계 형사인 준수가 살인사건 범인으로 체포되자 누명을 벗기 위해 비공식 합동추리작전을 시작하고 그들 앞에 두번째 살인 사건이 일어난다.

코믹 연기에 일가견이 있는 권상우와 성동일이 호흡을 맞췄으며 '제2의 로맨스'의 각본과 연출을 맡은 김정훈 감독 작품이다. <15세 이상 관람가>

서부전선

휴전 3일전에 동지를 모두 잃고 각각 홀로 남은 남북의 병사가 서부전선에서 맞닥뜨리는 이야기를 다룬 전쟁 휴먼 코미디다.

농사 짓다 끌려온 남한군과 탱크는 책오로만 배운 북한군이 전쟁의 운명이 달린 비밀문서를 두고 위험천만한 대결을 벌이는 내용을 그리고 있다. 다양한 캐릭터로 변신하는 설경구가 남한 병사로, 어린 나이지만 '화이' 등을 통해 만만찮은 연기력을 발휘하고 있는 여진구가 북한측 병사로 출연한다. '해적-바다로 간 산적', '7급 공무원', 드라마 '추노' 등을 쓴 천성일 감독의 데뷔작이다. <12세 이상 관람가>

에베레스트

에베레스트에 도전한 산악 대원들이 극한 상황에 맞서는 이야기를 그린 재난 영화로 인간의 도전정신과 욕망에 눈이 먼 인간의 어리석음을 정면한 대자연의 풍경 속에 녹여냈다.

에베레스트를 정복하고자 하는 열망이 가장 뜨거웠던 1996년. 세계적으로 명성을 떨친 상업 등반 가이드 롭 홀과 치열한 경쟁 시장에서 갓 뛰어들어 등반 사업가 스캇 피셔, 그리고 전세계에서 몰려드는 최고의 등반대들이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에베레스트 정상을 향한다.

실화를 바탕으로 한 휴먼 드라마로 조슈 브롤린, 제이크 질렌할, 키아라 나이틀리 등 할리우드 스타들이 포진했다. 제7회 베니스 국제영화제 개막작

으로 선정, 전세계 언론과 평단의 호평을 이끌어냈다. <12세 이상 관람가>

인턴

열혈 30세 여성 CEO와 70세 인턴이 함께 난관을 헤쳐가며 인생의 친구가 되어가는 과정을 그린 작품이다. '로맨틱 홀리데이', '사랑할 때 버려야 할까'의 낸시 마이어스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으며 로버트 드 니로와 앤 해서웨이의 만남만으로도 화제다.

창업 1년 반 만에 직원 220명의 성공신화를 이룬 줄스는 수십 년 직장생활에서 비롯된 노하우와 나이만큼 풍부한 인생경험이 무기인 만능 70세의 벤을 인턴으로 채용한다. <12세 이상 관람가>

문:달의 요정

아름다운 프랑스 애니메이션으로 해와 달을 지키는 요정들이 존재하는 신비로운 세계를 무대로 하는 작품이다. 달의 요정 문은 열렬결에 밤과 꿈을 책임지는 최고 수호자로 임명되지만, 암흑의 지배자 네크로스가 태양을 훔쳐가자 태양 수호자 소훈과 함께 해를 찾아 나선다.

올해 안시국제애니메이션영화제 진출작이며 도

쿄애니메이션어워드페스티벌과 토론토어린이영화제에서 작품상을 받았다. '쿵푸팬더', '드래곤 길들이기' 제작진이 참여했으며 더빙판과 자막판, 2D와 3D 버전이 상영된다. <전체 관람가>

더 매직:리틀툼과 도둑공주

스페인·쿠바에서 만든 작품으로 19세기 유럽 동화 '푸시넷'을 스크린에 옮긴 애니메이션이다. 평화로운 왕국에 마법에 걸린 거대한 나무가 불속 자라나고 왕국이 어둠에 잠기자 작은 체구의 리틀 톰이 전설의 마법 도구를 찾아 왕국을 구하려 나서는 이야기다. 걸그룹 에이핑크의 남주를 홍보대사로 스페셜 OST를 제작하기도 했다. <전체 관람가>

레전드 오브 래빗:볼의 전설

중국에서 온 애니메이션이다. 무렵 고수로 거듭난 토끼 '투'가 전설 속 무림 불꽃의 신비한 힘으로 세상을 정복하려는 악당에 맞서는 여정을 그리고 있으며 다양한 동물 캐릭터 등이 눈길을 끈다.

그밖에 한 주 먼저 개봉한 '극장판 도라에몽:진구의 스페이스 히어로즈-우주영웅기'도 어린이 팬을 기다리고 있다. <전체 관람가>

/김민기기자 mekim@kwangju.co.kr

제10회 슬쑹 구절초와 함께하는 슬로투어



2015.10.3.(토)~10.11.(일) 9일간
옥정호 구절초 테마공원

(정읍시 산내면 매죽리 571)

가을의 서정시를 쓰다!

제10회 정읍구절초축제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옥빛 물결 아름다운 옥정호
푸른 호수 위에 피어나는 물안개...
그 몽환적 풍경을 배경으로

연보랏빛 은은한 구절초와 짙은 솔향이 어우러져
가을의 서정을 노래하는 그 곳... 옥정호 구절초테마공원!

올해도 이곳에서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가을향연이 펼쳐집니다.

슬쑹 아래 만개한 가을꽃,
구절초가 장관을 이루는
구절초테마공원에서 펼쳐지는
'슬쑹 구절초와 함께하는 슬로투어!'
제10회 정읍구절초축제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한국관광공사 선정,
'2014 대한민국 베스트 그곳'에 빛나는
정읍구절초축제에서 깊어가는
가을정취를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주최 | 정읍시 주관 | 정읍시 구절초축제 추진위원회 농업정책과 ☎063.539-6173